

홈 연승 이어간 광주FC

K리그 챌린지 22R 부천FC 1대 0 꺾어

남기일 대행 “지지않는 축구 보여줄 것”

“지지 않는 축구를 하겠다.” 훈련의 시간을 보낸 광주 FC가 기적을 향한 9월을 열었다. 광주는 후반기 시작과 함께 연패 속 사활탑이 중도에 사라지는 악재를 맞았다. 내부의 돌발 변수로 어수선했던 광주가 홈 연승으로 안정세를 찾았다.

역시 승리가 가장 좋은 처방약이었다. 광주는 지난 1일 광주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부천 FC와의 22라운드 경기에서 후반 막판에 터진 김준영의 골로 1-0 승리를 거뒀다. 지난 20라운드 경찰축구단과의 경기에서 3-1 승리를 거두었던 광주의 홈 2연승이다.

초반 경기 흐름은 빠른 공세로 광주의 수비진을 괴롭힌 부천이 가져갔다. 광주는 전반 중반 이후 김호남과 루시오를 죽으로 공격을 펼쳤지만 골 운이 따르지 않았다.

골 집중력을 살리지 못하며 어렵게 경기를 풀어가던 후반 41분 마침내 기다리던 골이 나왔다. 활발한 움직임에도 소득이 없었던 루시오가 득점의 시발점이 됐다. 부천 진영으로 침투하던 루시오가 골 포스트 유희에 있던 이광진에게 공을 찍어줬다.

패스는 라인을 벗어나는 것 같았지만 이광진이 원발로 팔꿈치로 공을 살려 다시 중앙으로 넘겼다. 공은 쇄도하던 김준영의 유행에 걸리면서 부천의 골망이 흔들렸다. 광주는 이후 침착하게 남은 시간을 지켜내며 끝진 승점 3점을 더했다.

남기일 대행은 “오랜만에 낫 경기를 하느라 선수를 집중력이 떨어진 모습이었다. 전반전이 끝나고 이

기고 지는 걸 떠나서 도전하려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선수들에게 큰 소리를 쳤다. 후반전에 달리지기를 바랐는데 좋은 결과가 나왔다”며 “중간에 떠 말다시피 팀을 맡겨 돼서 힘든 부분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지지 않으려고 한다. 이제는 확실히 하겠다. 지지 않는 축구를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홈 2연승으로 남 감독대행의 어깨도 한결 가벼워졌다. 남은 라운드 승리를 향한 동력도 확실하다. 값진 승점의 중심에 섰던 루시오는 가장 믿음직한 전력이다.

남 감독대행은 “용병이라기 보다는 선수들의 만형 같다. 성실하고 열심히 한다. 팀에 도움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고 있다”고 말했다.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서울에서



한국 남자 하키도 우승

한국 남자 하키대표팀 이남영(오른쪽)이 지난 1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이포에서 열린 제9회 아시아남자선수권 대회에서 인도선수와 볼을 다투고 있다. 한국은 인도를 4-3으로 꺾고 2회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

구례군청 반달곰 씨름단 전국 제페

여자씨름 단체전…천하장사엔 임수정

제1대, 제2대 천하장사 출신인 임수정(부산시)이 천하장사에 다시 등극했다.

임수정은 지난달 30일부터 1일까지 구례에서 열린 제5회 전국 여자 천하장사 씨름대회에서 제3대 천하장사 송송화(경남도)를 2대 0으로 물리치고 황소 트로피와 우승상금 1500만원을 받았다. 또 체급별 장사전에서는 매화급(60kg이하) 박선, 국화급(70kg이하) 서현, 무궁화급(80kg이하) 이다현 등 개인전 3체급을 모두 구례군청 반달곰 씨름단 소속 선수들이 이끌었다.

구례군청 반달곰 씨름단은 단체전 우승(사진)도 차지해 전국 여자씨름 선수단 가운데 최고의 기량을 과시했다. 구례군은 지난 2011년에 전국 최초의 여자씨름단인 ‘구례군청 반달곰 씨름단’을

창단하는 등 한국 여자씨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오면서 여자 천하장사 씨름대회도 5회째 개최해오고 있다.

김채홍 부군수는 “내년 대회도 최선의 준비와 노력으로 여자씨름의 대중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구례=김동기자 dhkim@



한국 세파타크로, 종주국 넘었다

男대표팀, 태국·말레이지아 연파 슈퍼시리즈 우승

한국 남자 대표팀이 2013 세계 세파타크로연맹(ISTAF) 슈퍼시리즈 1차전에서 종주국 태국과 말레이시아를 물리치고 우승을 차지했다.

남자 대표팀은 지난 1일 인도 간디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결승전에

서 김영만(청주시청)·정원덕(청주시

청)·박현근(고양시청)·신추광(부산

환경공단)의 활약을 앞세워 말레이

시아를 세트 스코어 3-0(15-10, 15-

11, 15-10)으로 완파했다.

이로써 한국은 ISTAF 슈퍼시리즈에서 처음으로 금메달을 따내는 퍼거를 이뤘다. 3인 경기인 레구 종목만을 치르는 ISTAF 슈퍼시리즈는 2011년 출범한 대회로, 대표팀은 올해 두 번째로 출전했다.

대표팀은 8강전에서 태국을 3-0으로 누르더니 결승에서까지 말레이시아를 꺾어 종주국의 자존심을 구겨냈다.

다.

남자 대표팀은 이번 금메달로 내년 인천아시안게임에서의 활약도 예고했다.

여자 대표팀은 인도네시아-태국-베트남-말레이시아에 이어 어렵게 5위에 머물렀다.

한국은 16일~22일 태국 우돈타니에서 열리는 제28회 세계 선수권대회에 출전한 후 장소를 방콕으로 옮겨 26~29일 ISTAF 슈퍼시리즈 2차전에 참여한다.

베일 1477억 ‘역대 최고’

레알마드리드 이적 확정

올해 유럽축구 여름 이적시장의 ‘최대어’로 손꼽힌 가레스 베일(24)이 이루한 협상을 끝내고 마침내 역대 최고 이적료로 스페인 프리미리가의 ‘거점’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을 마무리했다.

레알 마드리드는 2일(한국시간) 훌 페이지를 통해 “베일이 레알 마드리

드에 합류하게 됐다”고 발표했다.

베일의 계약 기간은 6년인 가운데 팬들의 관심을 끌었던 이적료는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영국과 스페인 언론들은 베일의 이적료를 8600만 파운드(약 1477억원)라며 역대 최고액이라고 일제히 보도했다.

/연합뉴스

한국 남자 하키도 우승

한국 남자 대표팀이 지난 1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이포에서 열린 제9회 아시아남자선수권 대회에서 인도선수와 볼을 다투고 있다. 한국은 인도를 4-3으로 꺾고 2회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

한국 남자 하키대표팀 이남영(오른쪽)이 지난 1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이포에서 열린 제9회 아시아남자선수권 대회에서 인도선수와 볼을 다투고 있다. 한국은 인도를 4-3으로 꺾고 2회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

한국 남자 하키대표팀 이남영(오른쪽)이 지난 1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이포에서 열린 제9회 아시아남자선수권 대회에서 인도선수와 볼을 다투고 있다. 한국은 인도를 4-3으로 꺾고 2회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

한국 남자 하키대표팀 이남영(오른쪽)이 지난 1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이포에서 열린 제9회 아시아남자선수권 대회에서 인도선수와 볼을 다투고 있다. 한국은 인도를 4-3으로 꺾고 2회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

한국 남자 하키대표팀 이남영(오른쪽)이 지난 1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이포에서 열린 제9회 아시아남자선수권 대회에서 인도선수와 볼을 다투고 있다. 한국은 인도를 4-3으로 꺾고 2회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

한국 남자 하키대표팀 이남영(오른쪽)이 지난 1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이포에서 열린 제9회 아시아남자선수권 대회에서 인도선수와 볼을 다투고 있다. 한국은 인도를 4-3으로 꺾고 2회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

한국 남자 하키대표팀 이남영(오른쪽)이 지난 1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이포에서 열린 제9회 아시아남자선수권 대회에서 인도선수와 볼을 다투고 있다. 한국은 인도를 4-3으로 꺾고 2회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

한국 남자 하키대표팀 이남영(오른쪽)이 지난 1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이포에서 열린 제9회 아시아남자선수권 대회에서 인도선수와 볼을 다투고 있다. 한국은 인도를 4-3으로 꺾고 2회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

한국 남자 하키대표팀 이남영(오른쪽)이 지난 1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이포에서 열린 제9회 아시아남자선수권 대회에서 인도선수와 볼을 다투고 있다. 한국은 인도를 4-3으로 꺾고 2회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

한국 남자 하키대표팀 이남영(오른쪽)이 지난 1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이포에서 열린 제9회 아시아남자선수권 대회에서 인도선수와 볼을 다투고 있다. 한국은 인도를 4-3으로 꺾고 2회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

한국 남자 하키대표팀 이남영(오른쪽)이 지난 1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이포에서 열린 제9회 아시아남자선수권 대회에서 인도선수와 볼을 다투고 있다. 한국은 인도를 4-3으로 꺾고 2회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

한국 남자 하키대표팀 이남영(오른쪽)이 지난 1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이포에서 열린 제9회 아시아남자선수권 대회에서 인도선수와 볼을 다투고 있다. 한국은 인도를 4-3으로 꺾고 2회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

한국 남자 하키대표팀 이남영(오른쪽)이 지난 1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이포에서 열린 제9회 아시아남자선수권 대회에서 인도선수와 볼을 다투고 있다. 한국은 인도를 4-3으로 꺾고 2회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

한국 남자 하키대표팀 이남영(오른쪽)이 지난 1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이포에서 열린 제9회 아시아남자선수권 대회에서 인도선수와 볼을 다투고 있다. 한국은 인도를 4-3으로 꺾고 2회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

한국 남자 하키대표팀 이남영(오른쪽)이 지난 1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이포에서 열린 제9회 아시아남자선수권 대회에서 인도선수와 볼을 다투고 있다. 한국은 인도를 4-3으로 꺾고 2회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

한국 남자 하키대표팀 이남영(오른쪽)이 지난 1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이포에서 열린 제9회 아시아남자선수권 대회에서 인도선수와 볼을 다투고 있다. 한국은 인도를 4-3으로 꺾고 2회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

한국 남자 하키대표팀 이남영(오른쪽)이 지난 1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이포에서 열린 제9회 아시아남자선수권 대회에서 인도선수와 볼을 다투고 있다. 한국은 인도를 4-3으로 꺾고 2회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

한국 남자 하키대표팀 이남영(오른쪽)이 지난 1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이포에서 열린 제9회 아시아남자선수권 대회에서 인도선수와 볼을 다투고 있다. 한국은 인도를 4-3으로 꺾고 2회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

한국 남자 하키대표팀 이남영(오른쪽)이 지난 1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이포에서 열린 제9회 아시아남자선수권 대회에서 인도선수와 볼을 다투고 있다. 한국은 인도를 4-3으로 꺾고 2회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

한국 남자 하키대표팀 이남영(오른쪽)이 지난 1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이포에서 열린 제9회 아시아남자선수권 대회에서 인도선수와 볼을 다투고 있다. 한국은 인도를 4-3으로 꺾고 2회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

한국 남자 하키대표팀 이남영(오른쪽)이 지난 1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이포에서 열린 제9회 아시아남자선수권 대회에서 인도선수와 볼을 다투고 있다. 한국은 인도를 4-3으로 꺾고 2회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

한국 남자 하키대표팀 이남영(오른쪽)이 지난 1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이포에서 열린 제9회 아시아남자선수권 대회에서 인도선수와 볼을 다투고 있다. 한국은 인도를 4-3으로 꺾고 2회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

한국 남자 하키대표팀 이남영(오른쪽)이 지난 1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이포에서 열린 제9회 아시아남자선수권 대회에서 인도선수와 볼을 다투고 있다. 한국은 인도를 4-3으로 꺾고 2회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

한국 남자 하키대표팀 이남영(오른쪽)이 지난 1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이포에서 열린 제9회 아시아남자선수권 대회에서 인도선수와 볼을 다투고 있다. 한국은 인도를 4-3으로 꺾고 2회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

한국 남자 하키대표팀 이남영(오른쪽)이 지난 1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이포에서 열린 제9회 아시아남자선수권 대회에서 인도선수와 볼을 다투고 있다. 한국은 인도를 4-3으로 꺾고 2회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

한국 남자 하키대표팀 이남영(오른쪽)이 지난 1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이포에서 열린 제9회 아시아남자선수권 대회에서 인도선수와 볼을 다투고 있다. 한국은 인도를 4-3으로 꺾고 2회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

한국 남자 하키대표팀 이남영(오른쪽)이 지난 1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이포에서 열린 제9회 아시아남자선수권 대회에서 인도선수와 볼을 다투고 있다. 한국은 인도를 4-3으로 꺾고 2회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

한국 남자 하키대표팀 이남영(오른쪽)이 지난 1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이포에서 열린 제9회 아시아남자선수권 대회에서 인도선수와 볼을 다투고 있다. 한국은 인도를 4-3으로 꺾고 2회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

한국 남자 하키대표팀 이남영(오른쪽)이 지난 1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이포에서 열린 제9회 아시아남자선수권 대회에서 인도선수와 볼을 다투고 있다. 한국은 인도를 4-3으로 꺾고 2회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

한국 남자 하키대표팀 이남영(오른쪽)이 지난 1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이포에서 열린 제9회 아시아남자선수권 대회에서 인도선수와 볼을 다투고 있다. 한국은 인도를 4-3으로 꺾고 2회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

한국 남자 하키대표팀 이남영(오른쪽)이 지난 1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이포에서 열린 제9회 아시아남자선수권 대회에서 인도선수와 볼을 다투고 있다. 한국은 인도를 4-3으로 꺾고 2회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

한국